

“오라단지 현 계획으로 승인 어렵다”

원희룡 지사 어제 기자회견 “수행능력 등 설득력 부족 필요 기준 충족해야 가능” 재검토 수립기한 내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조달 및 수익 구조 등 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승인할 수 없고, 재검토 결정에 따른 재수립 기간도 1차적으로 내년 2월까지 기한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행

계획 3호’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해 제출할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인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됨에도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유로 부실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원 지사는 “(현재 사업계획으로)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제주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또한 사업자는 중국의 자산관리공사 ‘화웅’으로서 그동안 해외 투자 경험이나 레저사업 추진 역력이 전무해 사업 추진에 있어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새롭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한 다음 송악선언의 기준에 따라 판단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심의된 사업계획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 재수립 기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년 2월까지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면서 사실상의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신임 주일대사에 강창일 전 의원 내정

제주출신 4강대사 발탁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제주출신 강창일 전 국회의원(사진)을 내정했다. 제주출신이 4강(주미·주러·주일·주중)대사로 발탁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 처음이다. 강 신임 대사에겐 경제·외교·안보·문화·관광 분야의 광범위한 실무 경험이 주어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강 신임 대사 내정자는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 동양사학 석사, 동경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 문학부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임기내내 한일의원연맹에 몸담았다. 2017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강제동원 판결 이후 한·일 갈등상황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 최근까지 동국대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남관표 주일대사 부임 1년 반만에 이뤄진 이번 인사는 경제·외교·안보·문화·관광 분야의 광범위한 실무 경험이 주어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내정자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 기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외교·안보·문화 분야의 광범위한 실무 경험이 주어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강 신임 대사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를 대사로 보내는 건 정부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강한 의지가 아닌가 한다”며 정부와 조율해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부미원기자



버스정류장 추위 걱정 '독'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23일 제주시 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겨울 추위에 대비한 방한칸막이 설치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입실인원 축소·수험생 증상 유형별 시험장 운영

제주도교육청 수능안전시행대책 발표... 고교 원격수업 시작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안전대책을 내놨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안전 시행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치러지는 이번 수능은 도내 17개 시험

장(일반 14·별도 2·병원 1)에서 총 6554명이 응시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16명 감소한 인원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보면 일반·격리·확진 등 수험생 증상 유형별로 시험장을 분리·운영된다.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는데 거리 확보를 위해 인원을 기존 28

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책상마다 전면 칸막이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시험실은 지난해 288실에서 347실로 늘었고, 감독·방역 인력도 1496명에서 1820명으로 확대됐다.

이어 각 시험장 내 3실 내외를 따로 확보해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위

한 별도 시험실을 운영한다. 이 곳의 응시 가능 인원은 최대 4명이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별도시험장인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시험을 보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시험지를 받는다.

한편 23일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이 원격수업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학년은 26일부터 진행된다. 송은범기자

한라일보·제주미래연구원 공동기획 (…제주를 바꾸다) 9면

제주땅 팔던 외국인들 U턴하나

아파트 등 매입 사례 증가

최근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제주 땅을 팔던 외국인들이 제주의 아파트 등으로 관심을 되돌리고 있다. 사업을 위한 레저나 상업용지가 아닌 주거나 소규모 투자용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의 토지 규모는 1만4790필지, 면적 2250만5949㎡, 금액 1조864억8000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618필지, 2253만100㎡, 1조835억7400만원에 견줘 필지와 금액은 증가했고, 면적은 소폭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현황은 1만4644필지, 2254만8255㎡다. 면적상으로 1년 전인 2018년 말의 2286만8330㎡에 비해 32만75㎡(1.4%가량)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팬데믹으로 제주지역 토지를 처분하는 사례가 상반기에 크게 늘었다. 지난 3-6월 3개월간 도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들이 193필지에 16만5969㎡를 처분했다. 이에 따른 신고 금액은 380억64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에 외국인이 구입한 도내 토지 규모는 149필지, 4만3812㎡로 금액은 162억8300만원 규모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보다 매각한 규모가 44필지, 12만2157㎡ 더 많았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의 도내 아파트는 1251호로 1년 전의 1186호에 비해 65호(5.5%) 늘었다. 단독주택도 올해 55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5호보다 55호(11.1%) 많았다. 백금탁기자

2020 온라인 제주감귤박람회

제주감귤, 새로운 도전과 희망!
코로나보다 강한 제주감귤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2020. 11. 27(금) ~ 12. 11(금)

제주감귤박람회 홈페이지(www.jicexpo.com)

온라인 행사

- 감귤박람회 라이브방송
- 온라인 감귤홍쇼핑
-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

- 감귤가공제품전
- 농기자재전

비대면 행사

- 귤빛가요제
- 감귤따기 체험
- 드라이브스루 감귤판매

비대면 전시관

- 감귤품평회 전시관
- 감귤가공제품 전시관

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감귤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사)제주감귤연합회,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